"해외작가 소통의 메신저 되고 싶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첫 외국인 직원 오렐리 와캉

佛 외무부 예술분과 담당 출신 외국작가 코디네이터 맡아

"세계적인 미술 축제를 기획하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전문가 그룹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광주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창립 14년 만에 처음으로 영입한 외국인 직원 오렐리 와캉(32·Aurelie Wacquant·프랑스)은 국제 무대에서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을 높게 평가했다.

아시아 첫 비엔날레로서 매회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젊은 작가를 세계 무대에 소개하는 '아티스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와캉은 재단의 해외 교류와 외국 참여작가 관리, 전시 리서치 등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됐다.

또 제8회 광주비엔날레(2010년 9월3일~11월7일)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총감독의 어시스트를 맡는다. 해외 출장이 잦은 총감독을 대신해 국내 전시 등을 리서치하게 된다.

재단이 마련한 '광주비엔날레 국제 큐레이터 코스'(8월24일~9월20일)에 참여하는 28명의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생활을 돕는 일도 그녀의 몫이다.

요즘 그녀는 참여 학생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큐레이터 코스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광주에서의 생활을 조언해 주고 있다.

그녀가 광주비엔날레와 인연을 맺은 것은 파리 소르본느 대학교에서 문화경영을 전공한 뒤 프랑스 외무부 문화통신부 산하의 프랑스예술진흥협회에서 예술분과 담당으로 일하면서부터이다.

이곳에서 신진작가 전시기획과 작가 자료수집, 프랑스 작가의 국제 전시 지원,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던 그녀는 자연스레 광주비엔날레를 접하게 됐다.

그녀는 프랑스 외무부에서 일하면서 1년에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일 욕심도 많았다. 또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미술계에서 인맥을 넓힐 수 있었다.

와인을 즐기는 유럽 예술인들과 교류하기 위해 1년 동안 국제와인협회(OIV)에서 와인 매니지먼트 과정을 수료한 이색 경력을 쌓기도 했다.

재단은 유럽 미술계의 '마당발'인 그녀가 해외 작가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녀는 "현대미술의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광주비엔날레가 '큰 일'을 해내고 있다"면서 "첫 시도되는 큐레이터 코스를 통해 광주비엔날레가 더욱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지엔느의 낯선 광주 생활을 걱정하는 주변의 시선도 있지만 그녀는 "싱싱한 야채와, 매콤한 광주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프랑스 작가들을 광주에 소개하고, 광주 작가들의 유럽 진출을 돕는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구자범 열풍' 이어가려면

대구문예회관(관장 박명기)은 한 달에 한번 아주 특별한 음악회를 연다. 마지막 주 화요일에 열리는 모닝콘서트이다. 굳이 '특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공연시간이 오전 11시이기 때문이다.

대구문예회관이 모닝콘서트를 추켜 든 것은 저녁 시간을 내기 어려운 주부나 자영업자들에게 클래식 감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 때문일까. 지난해 5월 첫선을 보인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매회 100~200명의 '단골'이 생겨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모닝콘서트가 대박을 낸 데에는 진행자인 박명기 관장의 몫이 크다. '박 관장의 음악이야기'라는 타이틀이 붙은 콘서트는 그의 맛깔스런 진행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다. 오페라면 오페라, 교향곡이면 교향곡 등 음악에 관한 한 '막힘이 없는' 해박한 설명은 클래식에 대한 관객들의 울렁증을 어루만져준다. 이제 '박 관장의 음악이야기'는 대구시의 문화브랜드로 떠올랐다. 기업과 관공서 등에서 박 관장을 초청하는 러브콜이 줄을 잇는 등 대구의 문화지형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구문예회관이 시민들과 소통하기까지에는 대구시의 과감한 발상전환이 계기가 됐다. '공연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한 대구시는 대구문예회관의 개혁카드로 외부인사 영입을 꺼냈다. 정년 퇴임을 앞둔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자리'로는 더 이상 문예회관의 발전이 없다며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임용된 박 관장(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겸임교수)은 모닝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내놓으며 지역 문화계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부산 역시 개혁의 물결이 거세기는 마찬가지. 시립예술단의 변화가 없는 한 '문화 부산'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한 부산시는 시립예술단원의 평가제도에 메스를 들이댔다. 종전 3년마다 관행적으로 시행했던 오디션 대신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의 상시 평가제를 도입해 느슨한 예술단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이로 인해 3~4명의 단원들이 퇴출되기도 했다.

올 초 광주도 세계적인 지휘자 구자범을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영입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지난 5월 정기 연주회에 이어 열린 광주교도소 공연 등은 지역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시민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는 그의 소신은 광주시향의 문턱을 낮추는 이른바 '구자범 효과'를 낳았다.

하지만 구자범이란 1인의 고군분투만으로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시립예술단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광주문예회관 관장은 여전히 퇴임을 앞둔 공무원들이 스쳐 지나가는 자리고,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처우와 평가 등은 시대의 흐름에 비켜서 있다.

따라서 '구자범 효과'가 지역 문화의 구태를 깨는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선 광주문예회관과 시립예술단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구자범 바람'이 일시적인 미풍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면 말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사직공원 팔각정 리모델링 작가·상징 조형물 확정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5일) 전시 기간 동안 광주시 남구 사동 사직공원 팔각정을 리모델링하게 될 작가와 상징조형물이 확정됐다.

〈본보 3일자 12면 참고〉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19일 "팔각정 리모델링에 조병수(조병수건축연구소 대표)씨와 미국의 색채컨설팅 분야 전문가인 질 필라로시아씨를 대표작가와 협업작가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팔각정 리모델링 작업은 예산 2억원을 들여 팔각정에 새 옷을 입히는 '생활 속 디자인'이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집' 섹션 큐레이터이기도 한 조씨는 팔각정 앞마당에 다양한 빛을 내는 'LED 봉'을 설치, 보는 각도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팔각정 리모델링 작업이 끝나면 인근의 아시아문화전당과 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인 양림동 일대의 이장우 가옥 등 근대문화유산과 어우러진 '종합 문화 벨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는 9월 개막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더할 나위 없는 멋'을 주제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팔각정 리모델링 가상도

한여름밤 퓨전 콘서트 21일 고흥남포미술관

고흥남포미술관이 한여름밤 흥겨운 콘서트를 준비했다.

남포 미술관은 21일 오후 8시 미술관 앞마당에서 '퓨전 콘서트 공감 21' 공연을 갖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에는 전통타악연구소 예술단과 남미 안데스 음악그룹 '유야리'가 함께 출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한국 전통 악기인 장구·북·징·장고로 구성된 사물놀이와 께나·산뽀니아 등 안데스 전통악기가 어우러진 퓨전 곡 '혼의 소리', 다양한 생활 도구와 전통 타악기를 개량해 만든 악기로 들려주는 타악 퍼포넌스 '타타타'를 비롯해 영화음악, 동요, 가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또 우리동네 장기자랑 등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문의 061-832-00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극장서 만나는 '광주 현대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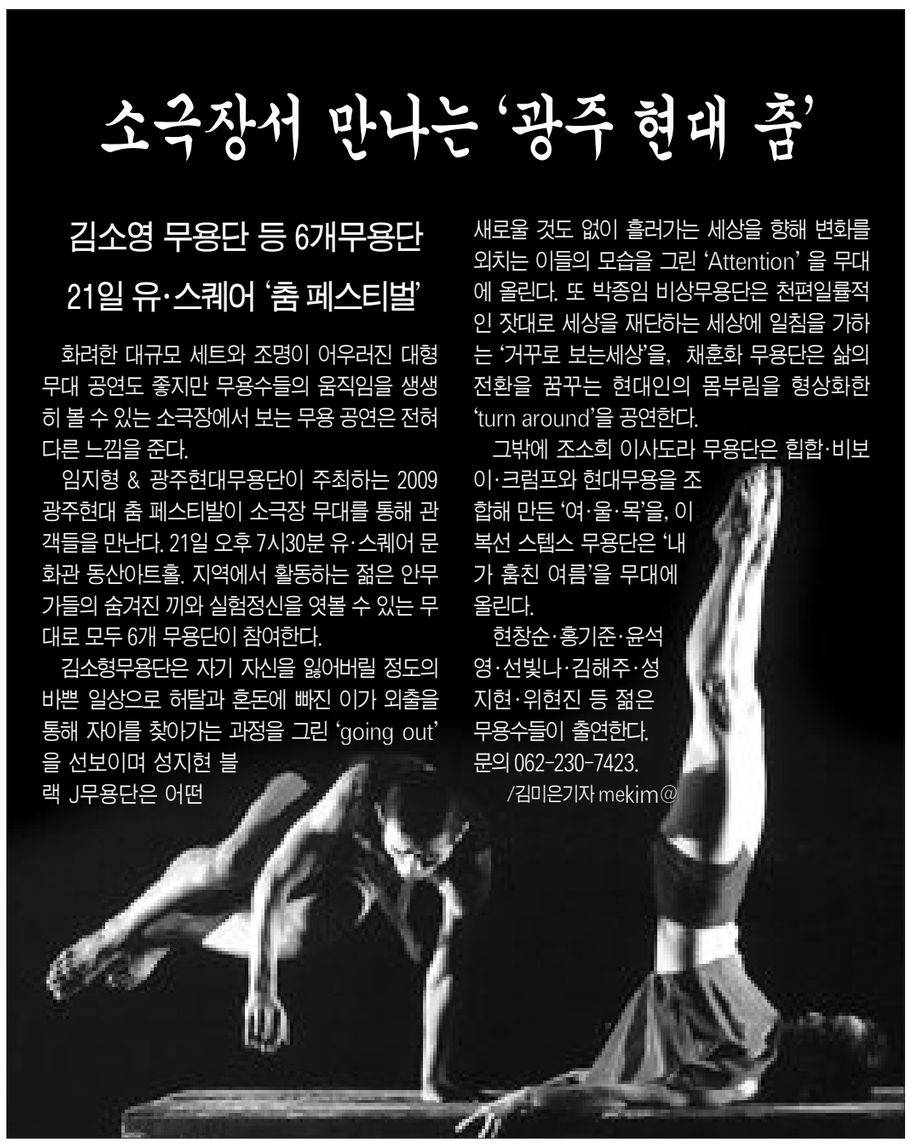
김소영 무용단 등 6개무용단 21일 유·스퀘어 '춤 페스티벌'

화려한 대규모 세트와 조명이 어우러진 대형 무대 공연도 좋지만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생생히 볼 수 있는 소극장에서 보는 무용 공연은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임지형 & 광주현대무용단이 주최하는 2009 광주현대 춤 페스티발이 소극장 무대를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안무가들의 숨겨진 끼와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는 무대로 모두 6개 무용단이 참여한다.

김소형무용단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바쁜 일상으로 허탈과 혼돈에 빠진 이가 외출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going out'을 선보이며 성지현 블랙 J무용단은 어떤 새로울 것도 없이 흘러가는 세상을 향해 변화를 외치는 이들의 모습을 그린 'Attention'을 무대에 올린다. 또 박종임 비상무용단은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는 세상에 일침을 가하는 '거꾸로 보는세상'을, 채훈화 무용단은 삶의 전환을 꿈꾸는 현대인의 몸부림을 형상화한 'turn around'을 공연한다.

그밖에 조소희 이사도라 무용단은 힙합·비보이·크럼프와 현대무용을 조합해 만든 '여·울·목'을, 이복선 스텝스 무용단은 '내가 훔친 여름'을 무대에 올린다.

현창순·홍기준·윤석영·선빛나·김해주·성지현·위현진 등 젊은 무용수들이 출연한다. 문의 062-230-7423.

/김미은기자 mekim@